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이 9월 9일 치러진 보스톤 시장 예비선거에서 72%를 득표하는 압승을 거뒀다. 지금까지 현임 시장이 예비선거에서 리드한 경우 모두 본선에서 더 큰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압승 미셸 우 보스톤 시장,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

예비선거서 압도적 승리... 미셸우 72%, 크래프트 23% 엄청난 차
보스톤의 언론들, 크래프트 막대한 선거비용 쓰고 오히려 지지율 잃어
반 이민 정책에 맞서는 여전사의 돈으로 유권자 못산다는 메시지 효과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
스톤 유권자들의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이 9월 치러진 보스톤 시장 예
비선거에서 조시 크래프트 후보를 크게 따돌
리며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
AP통신은 개표 시작 불과 18분 만에 우 시
장의 승리를 선언했다. 100%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우 시장은 전체 72%를 득표했다. 2

〈전체 기사 읽기〉
위 득표자인 크래프트(23%)와는 무려 49포인트 차다. 예비선거 사상 두번째 득표자인 역
대급 압승이다. 또 다른 후보자였던 도밍고스
다로사와 로버트 카푸치는 미미한 득표에 그
치며 예선에서 탈락했다. 보스톤의 선거제도에
따라 상위 득표자 두 명이 11월 본선에 진출
해 최종적으로 맞붙는 >>10면으로 계속

ICE, 보스톤서 대대적 2차 이민 단속...이민사회 공포

뉴잉글랜드 전역에 추방 기계화 체제 구축...단속중
늘 경계하고 현재가 단속 상황임을 인지, 권리도 숙지해야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대적인 단
속 작전을 본격화하면서 이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국토부는 7일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새로
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명
은 패트리엇 2.0(Patriot 2.0)이다. 앞서 지
난 5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패트리엇
작전(Operation Patriot)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 동안 주 전역에서 단속을 벌여 약 1,500명
을 체포했었다.
보스톤글로벌에 따르면 특히 히스패닉 이
민자들의 경우 식구 중 한 명이 갑자기 ICE
체포되어 사라지고 행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
다. 연방정부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들을 대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
제로 절반 정도는 범죄경력이 없는 이민자들
도 체포되고 있다. >>10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스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저아 하블린터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지금 이 채용자 기회!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책임집니다!
저금리 융자 · 채용자 전문, 맞춤형 금융 솔루션으로
최적의 결과를 드립니다.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Disclosure: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is an Equal Housing Lender. We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familial status. Licensed Mortgage Banker-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Terms and conditions apply. All loans subject to underwriting approval.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 음악 대가들 한자리에,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자유의 울림>

10월 3일 금요일 뉴잉글랜드음악원 조던홀, 보스톤서 세계 초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전체 기사 읽기>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콘서트 <자유의 울림 Resonance of Freedom>이 오는 10월 3일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조던 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미동부 최초의 한인 교회인 뉴욕한인교회 (Korean Methodist Church and Institute, 633 W. 115th St. New York, NY) 내에 설립되는 <뉴욕독립기념관>의 9월 23일 개관을 기념해 기획됐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와 주보스턴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먼저 보스톤에서 무대에 올린 뒤, 이를 후 뉴욕에서 같은 공연이 이어진다.

1부에서는 김동민 지휘자와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NYCP)가 먼저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을 연주하고, 피아니스트 백혜선씨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협연한다. 2부에서는 작곡가 김택수씨의 칸타타 <들풀 The Grass Still Grows: A Cantata for Memory, Community, and Hope>이 세계 초연된다.

LA 타임즈로부터 “놀라운 비르

투오조이자 센시티브하고 생각이 있는 음악가”, 뉴욕 타임즈로부터 “그만의 커다란 캐릭터를 가진 음악가” 로 평가받은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는 1990년대에 퀸 엘리자베스, 리즈, 윌리엄 카펠, 차이코프스키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 입상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서 서울대 음대 교수로 10년 동안 재직 후 다시 도미하여 클리블랜드 음악원을 거쳐 현재는 모교인 뉴잉글랜드 음악원 피아노과의 공동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과 연주를 병행하며 부산음악제 음악 감독,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상주 아티스트(Artist-in-Residence), 한국광복 80주년 행사의 홍보대사를 맡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 음악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는 에세이집 <나는 좌절의 스펙트리스트입니다>을 출간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 작곡과 교수인 김택수 씨는 일상의 평범한 일이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NYCP)

나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휴먼 스토리 같은 소재를 세련된 방식으로 끌어 올려, 명쾌하고도 위트있고 낯익은 양자가 살아있는 음악 작품으로 만들어 왔다. 그의 작품은 뉴욕 필하모니, LA 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샌디에이고 심포니, 오리건 심포니 오케스트라,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를랜드 심포니, 뉴월드 심포니, 한국의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경기 필하모니 등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했다. 그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주 작곡가(Composer-in-Residence)로 활동했으며, 2021년에는 부산 필하모닉의 상주 작곡가로 활동했다. 프롬 음악재단, 차비텔라 라니에리 재단, 코플랜드 하우스 등으로부터 수상했다.

세계 초연되는 칸타타 <들풀>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솔로리스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서곡을 포함해 총 1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사는 시편 126편, 예배 전례 (Miserere, Lux Perpetua), 임종순 목사의 연설문, 미국 독립 선언문, 변영로 시인의 <눈개>, 신사임당의 <유대관령망친정: 대관령을 넘어며 친정을 바라보다>, 미국 시인 엠마 라자루스의 <The New >

▶▶3면으로 계속

서울설령탕
SULLEUNG 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e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oegi yangnyum Gui (pork sid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JUNG KWAN JANG
MA주 정관장 공식 브랜드 스토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가위 선물

녹용 기력충전 - 천녹정

정관장 공진단 - 황진단

비만억제 및 혈당관리 GLP-1 활성화

Burlington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Tel) 929-600-4880

MART

▶▶2면에 이어서

Colossus), 미국 흑인 문학계의 거장인 랭스턴 휴스의 <I, too>, 독립 만세운동을 묘사한 장철우 목사의 <아우내장터>, 뉴욕한인교회의 <1980년 시국선언문> 등이 사용되었으며, 마지막 악장은 <아리랑 연가 Arirang the Love Sonata>로 마무리된다.

출연 성악가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이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소프라노 흥혜란씨, 독일 도르트문트 오페라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했으며 오는 1월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 예정인 메조소프라노 김호나씨, 2020년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역으로 데뷔했고 독일과 미국,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테너 최원희씨, 린데만 영아티스트 프로그램 출신으로 2017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바리톤 최기돈씨이다.

지휘를 맡은 김동민 씨는 젊은 실력과 음악인으로 구성된 실내악단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의 설립자이자 음악 감독이다. 2010년 창단 이후 뉴욕을 중심으로 250회 이상 연주했고, 아시아와 남미에서 세 번의 투어를 이끌었으며,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미국 투어 공연을 함께 했다. 케네디센터에서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서울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무대에 올렸다. 텍사스의 라운트 탑 뮤직 페스티벌에 2년 연속 초청되어 텍사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볼티모어 심포니,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잭슨빌 심포니, 샌안토니오 심포니, 버지니아 심포니 등을 지휘했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는 “뛰어난 기량의 한인 음악가들이 한 자리

에 모이는, 보스턴에서 보기 드문 무대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순수함과 열정이 살아있는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와 김동민 지휘자, 대가의 원숙함과 인간미가 넘치는 백혜선 교수의 피아노 협연, 독립 운동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미국의 역사를 엮어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김택수 교수의 신작 칸타타 <들풀>,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정상급의 한인 성악가들의 솔로와 앙상블은 청중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보스턴 총영사관의 후원 덕분에 입장료가 없는 공연이니 많은 분들이 사전 등록을 통해 티켓을 예약하고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공연 정보>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자유의 울림
 Resonance of Freedom: In Commemoration of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장소: 뉴잉글랜드 음악원 조턴 홀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일시: 2025년 10월 3일 (금) 오후 7:30
 입장료: 무료 (사전등록 필수)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협회 인턴 장학기금 마련 <코미디 나잇> 9월 25일 서머빌서 개최

보스톤코리아 독자, 티켓 구매 시 20달러 특별 할인
 헨리 조와 헬렌 홍 무대에 올라 공연, 마카일라 수니 캠벨 사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KACL)가 시민참여 인턴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오는 9월 25일 목요일 오후 서머빌 아츠 앤디 아머리에서 ‘코미디 나잇(Comedy Night)’을 개최한다.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은 \$2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유명 코미디언 헨리 조(Henry Cho)와 헬렌 홍(Helen Hong)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다. 사회는 방송인 마카일라 수니 캠벨(Mikayla Soo-ni Campbell)이 맡으며, 보스턴 레드삭스 공식 DJ 머니 맵(@moneymav)도 참여한다. 행사장 문은 오후 6시에 열리며, 공연은 오후 7시에 시작된다.

무엇보다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에게는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 티켓 예매 시 보스톤코리아 독자를 위한 2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 저렴한 가격에 이벤트를 즐기며 동시에 한인 차세대 장학사업에 힘을 보태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행사는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매스컬처럴카운슬(Mass Cultural Council), 코리아안 아메리칸 카

<전체 기사 읽기>



운슬 (Korean Americans Boston Chapter) 등 다양한 단체와 기업이 후원한다.

티켓은 QR코드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예매시 할인 코드(Host25)를 넣어야 한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일시: 9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6시부터 입장)

행사장: Arts at the Armory, (191 Highland Ave. Somerville, MA)
 bostonkorean@hotmail.com

신문을 독자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스톤 한미노인회, 사랑방모임 9월부터 월 2회로

여름인 7,8월 동안 피크닉과 정기모임 등 월 1회 모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노인회(회장 한순용)는 무더운 여름인 7월과 8월 동안 매월 두 차례 갖던 사랑방 모임을 월 1회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7월에는 즐거운 피크닉을, 8월에는 정기 모임을 가졌다.

7월 16일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연례 आयु회를 샐리베리 비치(Salisbury Beach Pavilion)에서 개최해 시원한 바닷바람 속에 음식과 게임을 즐겼다.

8월 20일 정기 모임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다시 모여 반가운 만남을 나눴다. 이날 모임은 매사추세츠 한인회와 한문수민주평통 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된 ‘랍스터 파티’ 로, 예전 여름마다 찾던 캐비지 샴의 랍스터를 훨씬 저렴하게 풍성히 맛볼 수 있었다.

특히 장영수 한인회장과 박혜원 수석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어르신들의 랍스터 끼기를 도우며 식사를 보조해 따뜻한 감동을 더했다. 이어 8월 21일에는 한인 시민협회의 초청으로 보스톤 항구 선셋 크루즈에도 참가했다.

한편 노인회는 여름 동안 한국전쟁 기념일(6월 25일)과 광복절(8월 15일)을 맞아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6월 23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보스톤

〈전체 기사 읽기〉

협의회가 주최한 한국전 참전용사 ‘국기 달기’ 행사가 Woburn Cemetery에서 열렸다. 이어 7월 25일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다. 오후 3시에는 뉴햄프셔 주립 참전용사 묘지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은 행사가, 오후 5시에는 로웰에서 보스톤 한인 시민협회가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3일에는 보스톤 시청 앞에서 주보스톤총영사관 주관 국기 게양식이 열렸다. 성조기와 함께 게양된 태극기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어 8월 16일에는 총영사관(뉴튼 소재)에서 광복절 기념식이 이어졌다.

9월부터 월 2차례 사랑방 모임을 갖는 노인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행사에 동참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모임으로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한순용 회장은 “모든 한인 시니어들을 사랑방에 초대한다. 함께 모여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고 풍성한 노년을 누리시기 바란다.” 고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 문의는 회장 및 이사장에게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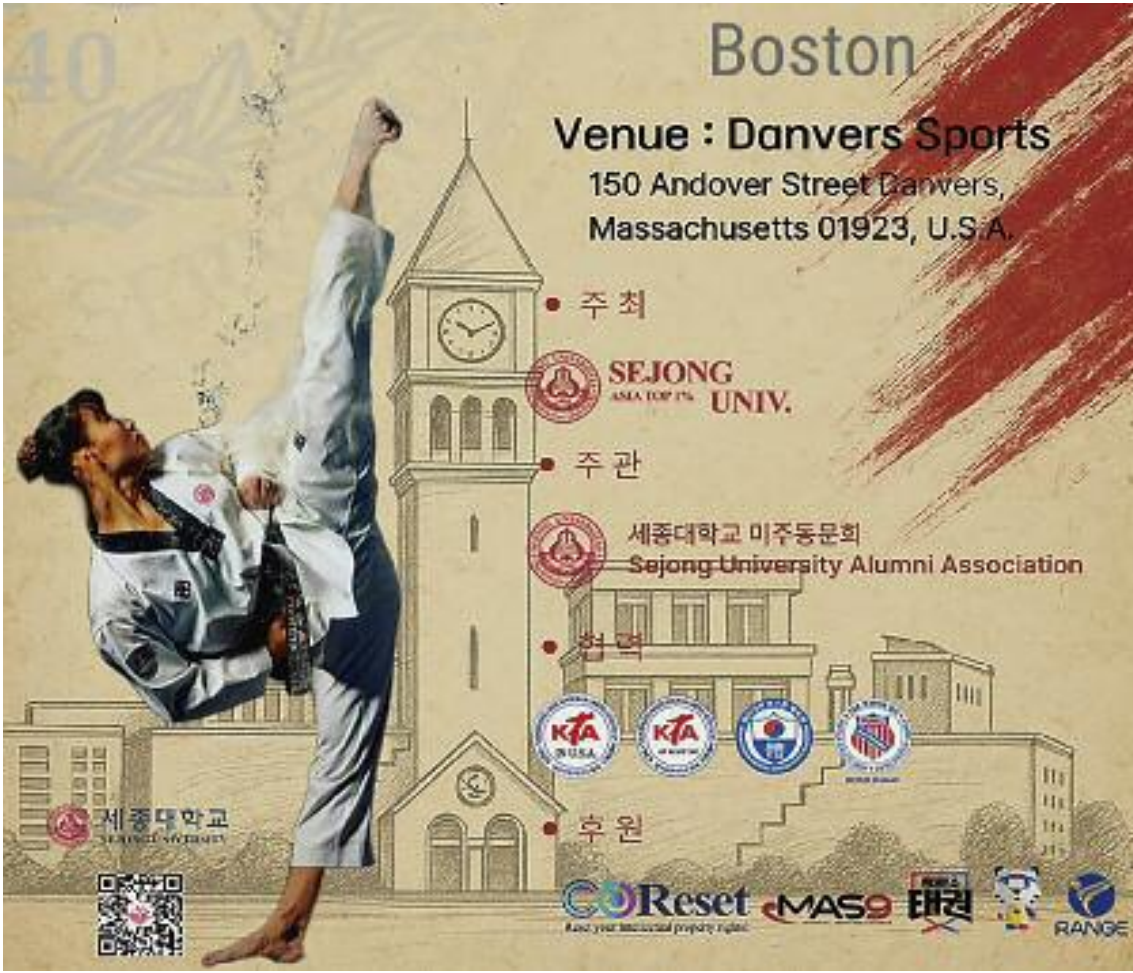
한미노인회 회장: 한순용(978-835-9168)
한미노인회 이사장: 민신자(781-439-8693)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세종대학교, 제1회 총장배 전미주 태권도대회 보스턴서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오는 10월 11일 토요일 댄버스(Danvers, MA)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종대학교 총장배 전미주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

제 1회 세종대 총장배 전미주 대회는 세종대가 주최하고, 세종대 산업대학원 스포츠산업학과와 태권도전공 미주동문회가 주관한다. 태권도를 통한 한·미 문화교류 활성화, 글로벌 청소년 인성교육 기여, 그리고 세종대학교 국제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엄종화 총장은 “이번 대회는 태권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미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소중한 행사”라며 “태권도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성 교육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홍순우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스포츠산업학과 태권도전공 미주동문회 회장은 “모교의 이름을 걸고 전미주 차원의 대회를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태권도를 통한 모교 기여와 동문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대회에는 미국 전역의 청소년 및

〈전체 기사 읽기〉 성인 태권도 수련생과 지도자, 동문들이 참가해 품새와 격파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또한 ▲태권도 시범 공연 ▲K-Culture 교류 프로그램 ▲세종대 홍보 부스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홍순우 미주동문회장(hong03079@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행사 개요
일시: 10월11일 2025년 11:30분 개최
장소: Danvers Indoor Sports



마켓 바스켓, 현 CEO 전격 해임... 고객들 "가격 오르냐" 불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전역에 90개 매장을 운영하는 마켓 바스켓의 이사회가 현임 CEO를 해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십 년간 ‘저렴한 가격, 안정된 일터’로 한인 포함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10일 회사 이사회는 오랜 기간 CEO로 재직해 온 아서 T. 디몰라스(70)를 전격 해임했다. 디몰라스는 창업주의 손자로, 회사 지분 28%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누이들인 세자매가 갖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 5월부터 디몰라스가 내부 파업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며 그를 유급 휴직 처리한 바 있다.

마켓 바스켓은 2014년에도 디몰라스 해임 사태로 대규모 직원 파업과 소비자 보이콧을 겪은 뒤, 그가 복귀하면서 갈등을 일단락 지은 전례가 있다. 이번 해임으로 당시처럼 매장 직원들의 저항이나 고객 보이콧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서머빌 지점에서 장을 보던 고

〈전체 기사 읽기〉

객 도나 레인스는 “앞으로 마켓 바스켓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닐까 걱정된다”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오드리 피셔는 “만약 자매들이 회사를 팔아 버리면, 결국 샤우스(Shaw’s)나 스탑앤샵(Stop & Shop)처럼 비싼 체인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마켓 바스켓은 지금까지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지 않고, 직원들을 장기 고용하며,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전통을 유지해 온 디몰라스의 경영 철학이 퇴진 이후에도 이어질지 미지수다.

서머빌에서 마켓을 이용한 로셀 레인은 “이사회가 내부 승진과 같은 문화나 직원 친화적 운영을 고려하는지 모르겠다”며 “2014년처럼 필요하다면 불매운동에 다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십 년째 단골이라는 마르시 팸필은 “이건 부유한 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일 뿐”이라며 “누가 CEO든 나는 계속 마켓 바스켓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매사추세츠, 주택 개발 환경심사 30일로 단축 추진

힐리 주지사, 주택 건설 가속화 위한 게임 체인저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심사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규제 개정안을 내놨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이를 “게임 체인저”라며 주택 공급 확대의 전환점으로 강조했다.

힐리 주지사는 9일 메드포드에서 진행 중인 한 주택 건설 현장에서 새로운 매사추세츠 환경정책법(MEPA, Massachusetts Environmental Policy Act)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사업에 대해 복잡한 환경영향 보고서(EIR, Environmental Impact Report)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한 환경통지서(ENF, Environmental Notification Form) 제출만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EIR 심사는 9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최대 100만 달러 비용이 들 수 있지만, ENF 심사는 30일에서 60일 안에 완료되며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힐리 주지사는 “정부가 기업 속도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며 “심사 기간을 1년에서 30일로 줄여 매사추세츠 전역의 주택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축 심사 대상 조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약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전체 개발의 67%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고, 단위 면적당 일정 주택 밀도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규 개발은 홍수위험지대 밖에 위치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만족하고 교통 증가를 제한하며, 물·하수·전력 공급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규정은 기후로드맵법(2021년)에 따른 환경정의(EJ) 지역 인근 개발의 정체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간소한 환경통지서(ENF) 제출로 주택 개발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정의(EJ) 지역은 저소득층, 소수인종 등 환경 피해에 취약한 지역 사회를 의미한다. EJ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개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경 1마일(대기질 문제의 경우 5마일) 내에서 추진되는 대

〈전체 기사 읽기〉

규모 주택 사업은 반드시 EIR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다세대 주택 개발은 사업성이 떨어져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해 EJ 인근이라도 ENF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지역 개발단체 반응

힐리 주지사와 레베카 테퍼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정이 “필요한 주택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도 높은 환경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존단체(TOR)와 보존법재단(CL Foundation) 등도 성명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비영리 주택개발단체 TND의 라파엘 마레스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환경 규제의 본질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주택난 해소 전망

매사추세츠는 오랜 기간 주택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어포터블 홈즈법’에 따라 향후 5년간 6만 5천 가구 이상을 공급·보존·개선하고, 10년 내 주택 공급을 22만 2천 가구(전체 7% 증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들어 단독주택 판매는 지난해보다 3.6% 늘었지만, 중간 판매 가격은 64만 달러로 3.4% 상승해 여전히 구매 여력 문제는 심각하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개정안이 “리본을 더 많이 지를 수 있는 길, 즉 더 많은 새 주택 완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프츠대, 내년부터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정에 등록금 전액 면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메드포드에 위치한 터프츠(Tufts)대학교가 내년 가을부터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가정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발표했다.

대학은 이를 ‘터프츠 등록금 협약(Tufts Tuition Pact)’이라고 명명하고,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등록금은 전액 보조금으로 충당되지만 주거·식비·교재 등 부대 비용에는 대출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외 비용만도 수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 다만 연소득 6만 달러 이하 가정은 대출이 없는 재정보조 패키지를 받게 된다. 이번 보장은 국내 학생에게만 해당한다.

수닐 쿠마르 텡스대 총장은 “고등교육 비용은 전국 가정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라며 “15만 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 등록금을 전액 부담함으로써 그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겠다는 터프츠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터프츠의 연간 총비용은 8만 3천~9만 3천 달러에 달하지만, 평균적으로 재정보조를 받는 학생은 절반 이하를 실제로 지불하고 있다. 올해 터프츠는 학부 재정

〈전체 기사 읽기〉

보조에 1억 4천 3백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학부생의 약 44%가 필요 기반(Need base) 지원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평균 보조금은 5만 5천 달러 수준이고, 평균 학자금대출은 1만 5천 달러 미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MIT를 비롯해 연 20만 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하는 대학들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매사추세츠 주립대 시스템도 연 7만 5천 달러 미만 가정에는 등록금과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터프츠는 연방 연구비 삭감 가능성 등 재정적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만큼 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보건원(NIH) 예산의 40% 삭감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터프츠 내 200여 개 연구 프로젝트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신입 연구자 4명의 채용 제안이 발급 하루 만에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프츠 재정보조 부학장 미건 하디 스미스는 “우리의 재정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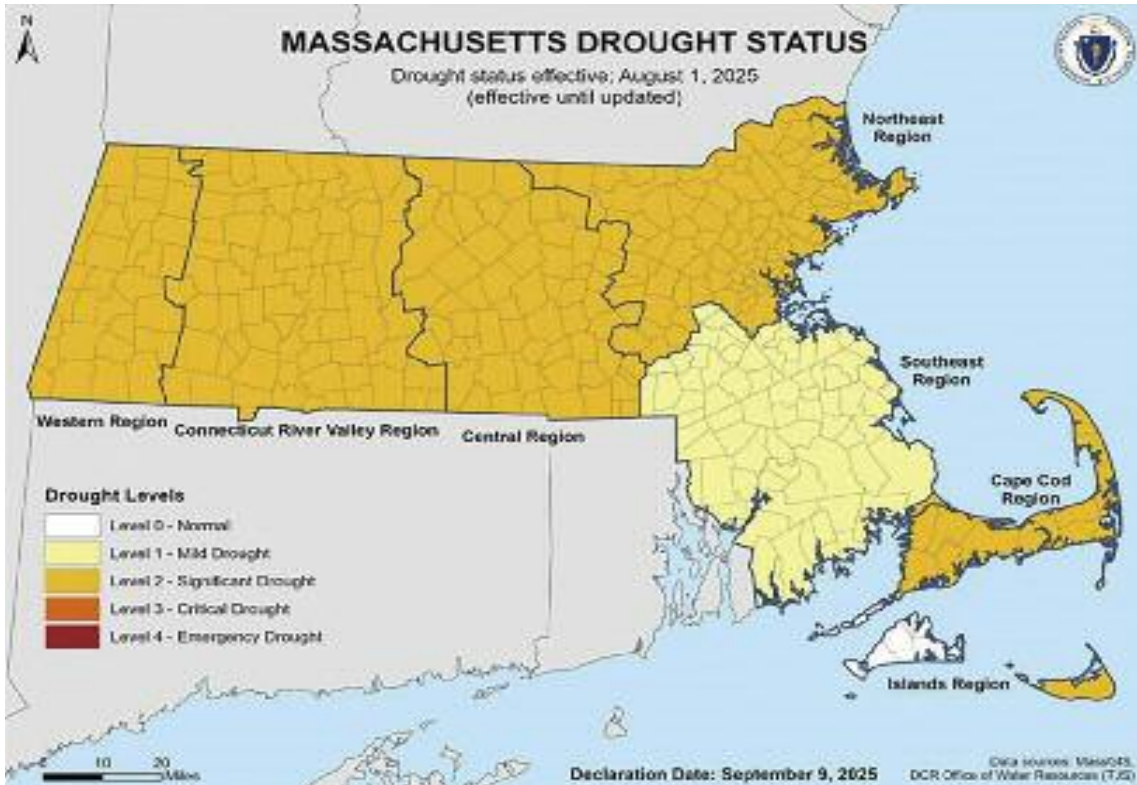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매사추세츠 대부분 지역 심각한 가뭄 단계 선포

주정부, 물 절약 및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 당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에너지환경부(EEA)는 서부, 케네디컷강 계곡, 주 중앙부, 북동부 지역과 낸터컷 카운티의 가뭄 상황이 2단계(Level 2)인 심각한 가뭄(Significant Drought)으로 악화됐다고 5일 발표했다. 남동부 지역은 1단계인 경미한 가뭄(Mild Drought)으로 격상됐으며, 케이프 코드 지역도 여전히 심각한 가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선포는 지난 3개월간 강수량이 평년보다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대부분 지역은 정상 강수량의 40~80% 수준의 비만 내렸으며, 8월 들어 가뭄이 심해 1~2인치 이상 강수 부족이 기록됐다. 이로 인해 강줄기가 말라 하천 바닥이 드러나거나 호수·연못 수위가 낮아지

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레베카 테퍼 환경부 장관은 “더운 여름은 우리 공원, 숲, 지역사회를 더 건조하게 만든다”며 “모두가 물 절약에 협조하고, 야외 활동 시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뭄은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물고기의 바다 이동이 방해받고, 하천과 습지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지하수 수위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 향후 식수 공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정부는 각 가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단계(가벼운 가뭄) - 물 사용을 최소화. 주 1회만 오전 9시 이전, 오

〈전체 기사 읽기〉

후 5시 이후 제한적으로 야외 물 주기를 할 수 있다. 화장실·수도꼭지 누수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2단계(심각한 가뭄) - 물 사용 최소화. 손으로 잡는 호스나 물뿌리개만 허용되며, 물 주기는 오후 5시 이후~오전 9시 이전으로 제한된다. 물 사용의 60%를 차지하는 실내 물 사용을 줄이기 및 누수 점검. 차량 세차나 마당 청소 등 불필요한 물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환경 당국은 각 지역 보건국, 수도공급업체와 함께 물 절약 캠페인과 기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주민들은 주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Massachusetts Water Impact Reporter’를 통해 건조 현상을 직접 보고하거나 사진을 제출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홀든지역 토네이도 발생...서부 지역 곳곳 강풍 피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우스터 서북쪽에 위치한 홀든(Holden, MA)에서 토네이도가 6일 오후 발생했다고 미 기상청이 밝혔다.

미 기상청 기상관 앤대 내시는 토네이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오후 4시 4분께 레이더 기록이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밝혔다. 공식 확인은 7일에야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다. 에밀리 맥민 기상관에 따

르면 노스햄튼, 홀리요크, 벨처타운, 우스터, 그리고 웨스트필드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됐다. 그램비에서는 시간당 64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관측됐다.

스토우에서는 나무와 전선이 다수 쓰러졌고, 벨처타운에서도 나무와 전선주가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홀리요크에서는 도로가 다수 폐쇄되고 지하도로가 침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 위로 대형 나무가 쓰러진 사진을 포함해 여러 피해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공항서 리튬이온 배터리 휴대하고 부치는 집에 넣으면 안돼

TSA 배터리 관련 새로운 보안 규정 적용...여행객 혼란 초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주요 공항을 오가는 여행객들은 최근 더욱 엄격해진 보안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교통안전청(TSA)은 지난 여름부터 리튬 및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면서 여행객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리튬 기반 배터리를 장착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드시 기내 휴대가방에 보관해야 한다.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은 물론, 여행객들이 간과하기 쉬운 일부 전자기기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부치는 집인 위탁수하물(체크인 짐)에 넣어서는 안된다.

TSA 관계자들은 “탑승 전 반드시 배터리 장착 기기를 휴대 집에 넣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 검색 과정에서 압수되거나 추가 점검으로 인해 탑승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연방항공청(FAA)의 예산 승인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 미 의회는 최근 ‘임시 지출 법안(stopgap measure)’을 통과시켜 FAA의 운영 중단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봉합책일 뿐, 장기적 제도 개선 없이는 항공 보안과 운영 안정성이 계속 불안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5 본당의 날

2025. 9. 21(주일)
대성전 / 본당 마당

<p>11:00 본당의 날 기념 미사 Christiano Basso, 보스톤 대학교 교구 주교 미사 집전</p> <p>12:30 식사 나눔 (성도회)</p> <p>13:30 본당 화합 레크리에이션</p>	<p style="font-size: small;">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p>
---	---

본당에 보내는
오전 9시 30분 전에 미사가 있습니다.
일회 부익드립니다.

성당 주소
45 Ash St,
Newton, MA 02458
(617) 558-2711

가톨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예비신자 교리반 식별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28일(주일) 오후 1시, 보스톤 한인성당 시저관
본당 홈페이지 참조 www.bostorkoreancatholic.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rkoreancatholic.org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풍과 함께 찾아온 보스톤의 새로운 맛집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보스톤의 거리 곳곳에서 새로운 미식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번 시즌 보스톤을 찾은 새로운 식당들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각자만의 철학과 창의적인 접근으로 도시의 다인 문화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있다. 아침 햇살을 머금은 갓 구운 베이글의 따뜻한 향기부터, 숙련된 바텐더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예술 같은 칵테일까지, 이곳들은 평범한 일상에 특별함을 선사하는 마법 같은 공간들이다.

유명 셰프가 새롭게 선보이는 혁신적인 메뉴와, 독창적인 컨셉으로 무장한 바들이 보스톤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전통적인 맛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이런 공간들은 미식가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약속한다. 단풍이 물드는 이 계절, 보스톤에서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맛의 여정을 시작해보자.

쉽라이트스 도터(Shipwright's Daughter)

2024년 제임스비어드 어워드 '북동부 최고의 셰프' 수상자인 데이비드 스탠드리지(David Standridge) 셰프의 새로운 레스토랑이 오픈했다. 코네티컷주 미스틱의 유명한 도개교 바로 옆, 이스트 메인 스트리트 4번지에 미스틱 피시 캠프(Mystic Fish Camp)

〈전체 기사 읽기〉

를 연다. 코네티컷에 위치한 데이비드 셰프의 해산물 레스토랑 쉽라이트스 도터(Shipwright's Daughter)의 명성을 이어 좀더 캐주얼한 해산물 요리를 선보이고자 한다.

미스틱 피시 캠프는 뉴잉글랜드 해안가의 매력과 여름 캠프의 향수를 한곳에서 느낄 수 있으며 전통적인 피시 쉼(Fish Shack)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캐주얼 레스토랑이며 현지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데이비드 스탠드리지 셰프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계절에 따라 메뉴도 바뀐다. 대표적으로는 로컬 생선튀김이 들어간 다양한 버거들이 대표적이며 싱싱한 해산물과 랍스터롤, 훈제 생선 튀김 등도 맛볼 수 있다.

미스틱 피시 캠프 웹사이트: <https://www.mysticfishcamp.com/>

쉽라이트스 도터 웹사이트: <https://www.shipwrightsdaughter.com/>

르 카페 & 베이커리 (Le Cafe & Bakery)

차이나타운에 숨겨진 유니크한 베이글집이 오픈했다. Le Cafe & Bakery는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컬러들과 데코레이션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 되고 있는 카페 겸 베이커리점이다.

소고기&치즈, 베이컨, 훈제연



달링 (Darling). <킬링 유얼 달링>에서 영감받아 식당이름이 붙여졌으며 그 의미 그대로 매일 메뉴를 바꾸며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어 등 식사대용인 베이글도 있지만 이 카페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디저트 베이글이 히트다. 스트로베리 크림치즈 베이글, 타로 모찌 베이글가 대표로 자리잡고 있고 날마다 다른 종류의 베이글을 선보인다. 분홍색 보라색 등 먹음직스러운 색들과 과일로 눈과 입이 두배로 즐겁다.

주소: 66 Kneeland St, Boston, MA 02111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e_cafebakery/

달링 (Darling)

케임브릿지 센트럴 스퀘어 한가운데에 새로생긴 중국풍 칵테일

바다." 킬링 유얼 달링"에서 영감받아 식당이름이 붙여졌으며 그 의미 그대로 매일 메뉴를 바꾸며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색다른 칵테일 바와 달링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딤섬 기반의 작은 메뉴들과 달링만의 인테리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자아낸다. 좋은 위치와 실험적인 칵테일과 다채로운 플레이팅으로 오픈 직후부터 젊은 미식가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바로 오픈직후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메뉴 역시 특별하다. 특히 몇몇 음식에는 한국적 요소가 가미되어 호기심을 자아낸다. 한국 엄마식 정통 불맛 치즈케익(Sweet for-

giveness cheesecake)과 고추장 소스로 만든 치킨 (Bang bang gai), 김치 버터가 들어간 블랙 타이거 새우요리가 있다. 달링은 이런 창의적인 메뉴들과 함께 매일 새롭게 바뀌는 칵테일을 선보이며 방문할 때마다 색다른 조합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덕분에 이곳은 단순히 한끼 식사장소를 넘어, 매번 새로운 영감을 맛볼 수 있는 케임브리지의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주소: 464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웹사이트: <https://www.darlingcambridge.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매년 7월
장소: 보스톤
문의: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2025년 국제 시각장애인 펜싱 선수권 대회
 보스톤 8월 17일~8월19일
 한국대표 김성혁 선수 동메달 수상

축하합니다

큰 연령차와 장애를 이긴 값진 승리입니다

"저는 펜싱경기 수상이 큰 기쁨이지만
 이 소식을 전하여 장애우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김성혁 목사-



압승 미셸 우 보스턴 시장, 재선 굳히기에 들어갔다

▶▶1면에 이어서

다. 미셸 우 시장은 9일밤 로슬린데일 아담스 파크에서 “보스턴의 유권자들은 결코 시장 직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승리)는 매일매일 선거활동을 통해 만들어졌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는 500여 행사를 열고, 8만여 가구의 문을 두드렸으며, 20만 건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표차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표차가 뚜렷한 탓인지 투표율은 낮았다. 시 선거관 리국에 따르면 투표율은 유권자의 15%에 불과했다. 우시장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서 계속 압도적인 지지도 차이를 보였으며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50포인트를 앞섰다.

크래프트 후보는 9일 투표 후 연설에서 11월 본선을 위해 더욱 열심히, 더욱 큰 목소리로 더 강력하게 선거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또한 현재 보스턴에 거주하는 많은 가정들의 삶도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다.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유일

하게 중요한 여론조사는 바로 11월의 본선”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선거는 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올해 시장 선거는 비용은 사상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선 활동가이자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즈 구단주 로버트 크래프트의 셋째 아들인 크래프트는 8월까지 6백80만 달러를 모금, 5백 60만달러를 사용했다. 이 중 5백50만달러는 조시 크래프트 자신에게서 나온 돈이다. 이에 반해 우시장은 총 1백 80만달러의 선거자금을 모금했다.

크래프트 후보가 역만장자 출신이다 보니 이번 선거는 자연스레 크래프트 후보의 모금액수와 돈의 출처에 관심이 모아졌다. 우시장은 크래프트 후보가 자신의 세금보고를 공개하지 않고 수입 개요만 내놓았다고 공격했다.

두 후보는 화이트 스타디움의 재건축을 두고도 충돌했다. 크래프트는 재건축의 비용이 계속 치솟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시장은 건축비용이 예산을 훌쩍 뛰어 넘은 것은 인정했지만 과다하게 치솟지는 않았다고 방어했다. 또한 자선거 도로도 뜨거운 논쟁거리

였다. 크래프트 후보는 보스턴 시장 확고한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자선거 도로를 확대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진정한 승부는 지난 3월 이미 결정됐다. 미 공화당 하원이 미셸 우 시장을 미 의회로 불러 ‘피난처 도시’ 정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미셸 우 시장은 이 기회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보스턴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 범죄율이 낮은 도시임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우 시장을 미 전국적인 스타로 데뷔시킨 셈이 됐다. 우시장은 주어진 기회를 충실히 이용해 이민자 탄압에 맞선 보스턴 지킴이로 우뚝 섰다. 이보다 더 강력한 선거운동이 있을까.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다 되려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조시 크래프트와 미셸 우 시장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오랫동안 자선활동으로 쌓아온 인맥과 든든한 선거자금을 갖춘 크래프트 후보는 강력한 도전자로 보였다. 그리고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5백60만 달러의 광고 등)을 했다. 그럼에도 그의 메시지는 보스턴 유권자들에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보스턴글로브의 분석에 따르면 조시 크래프트는 유권자당 \$260달러의 비용을 들였고, 미셸 우 후보는 유권자당 \$17달러의 비용을 들였다. 지금껏 매사추세츠의 대부분의 선거는 선거 자금력에서 승부가 갈려왔다. 그러나 지금을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중심의 입법부와 이민 정책을 두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특수한 상황이다. 삶을 통째로 건 승부 앞에서 돈이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표심을 읽지 못한 크래프트 후보의 지지율은 올해 초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

보스턴 언론은 본선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금껏 보스턴 역사상 재임 시장이 예비선거에서 앞

섰을 때 모두 시장의 승리였다. 심지어 2등 후보가 표차를 줄인 경우도 드물었다. 2009년 마이클 플라허티 후보가 토마스 메니노 후보와의 격차를 26.6%에서 15% 차로 10%가 넘게 줄였던 것이 최대였다. 2017년 티토 잭슨 후보가 마티 월시 시장과의 격차를 예비선거 33.4%에서 31.4%로 2% 줄였다.

보스턴 선거 전문가들은 결국 조시 크래프트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선은 11월 4일에 개최되며 유권자 등록 마감은 10월 25일이다. editor@bostonkorea.com

ICE, 보스턴서 대대적 2차 이민 단속...이민사회 공포

▶▶1면에 이어서

이민단속 감시 단체 LUCE의 자원봉사자 질리언 필립스는 “보스턴에서 매사추세츠 서부까지 이른 아침 시간대에 대규모 단속 활동이 목격되고 있다”며 “100% 새로운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4일 보스턴시와 미셸 우시장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우시장이 추진한 피난처 정책은 범죄자를 은닉하며, 법을 준수하는 미국 시민의 안전보다 범죄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ICE는 성범죄자, 마약상, 갱단 등 위험 인물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시장은 보스턴 경찰이 ICE의 민사이민 구금 요청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트러스트 법안(Trust Act)’을 강조하며,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연방기관과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역시 단순 민사 이민 위반만으로는 구금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이미 내린 바 있다.

우시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단속 조치는 우리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 법집행기관이 헌법과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며, 위반 증거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 활동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것도 매사추세츠에는 큰 부담이다. 톰 호건 트럼프 행정부 국경 차르는 8일 보스턴 25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매사추세츠에서의 이번 이민 단속 강화가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만은 “우리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에 자원을 더 투입할 것이며,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부가 매사추세츠 내 더 많은 경찰 부서들과 협력해 이민 단속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라 힐리 주지사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불법이민 단속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힐리 주지사는 7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미친 짓(insane)이며 옳지 않다(wrong)”고 규정하면서

, 이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아니라 정치적 쇼이자 협박 시도라고 말했다.

주지사는 또 “우리 주와 도시가 피난처 정책을 채택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꾸며낸 허구일 뿐”이라며 “매사추세츠에서 고등학교 생들이 배구 연습을 가는 길에 ICE 요원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ICE의 단속작전은 ‘추방 기계’라 불릴 정도로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뉴잉글랜드 전역에 구급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경찰 및 셰리프들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진보 판사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송 등을 체계화하고 있다.

ICE는 적극적인 단속인원 확충에도 나섰다. 올 7월 연방 예산으로 세 배의 재정 지원을 확보해 전국적으로 1만 명의 신규 인력을 총원 중에 있으며, 보스턴 관할 사무소에도 상당수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광고판과

물 전광판에 “조국을 지켜라(Defend the Homeland)”라는 구호와 함께 최대 5만 달러의 채용 보너스를 내걸고 대대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강력해진 ICE의 이민단속은 이민자 사회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인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지난 주말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엔지니어 배터리 공장에서는 한국 기술자 300여명이 체포됐다. LA 등의 한인타운에서는 이민단속으로 히스패닉 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문을 닫는 한인 식당도 상당수다.

이민단속 감시 단체 LUCE는 “이민자들은 현재가 집중 이민단속 기간임을 늘 숙지하고 경계해야 하며 반드시 이민자의 권리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ICE 체포 대비 2-3개 전화번호는 외워둬야

이민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이민 단속을 대비해 반드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가족들 전화번호 2-3개는 외워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최근엔 식구 전 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

다하기 때문이다. 구치소에서 스마트폰은 압수된다. 그러나 구치소 전화를 이용한 콜렉트콜(수신자 비용부담)은 허용되므로 최대한 빨리 가족에게 연락해 변호사를 접견해야 한다.

갑자기 식구가 행방불명된 경우라면 가족들은 스팸 같은 전화라 할지라도 받아야 한다. ICE는 체포 즉시 매일 출발하는 항공기(매사추세츠는 한스컴 비행장)를 통해 가능한 먼 곳으로 이송하므로 전화 번호가 타주 전화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포되는 경우 회사들과 수갑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니 결코 이 같은 행위에 위축되거나 반항하지 말아야 한다.

성기주 변호사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 체포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방재판에 처해지는 경우 현재 약 3-4년이 걸리게 되므로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도 발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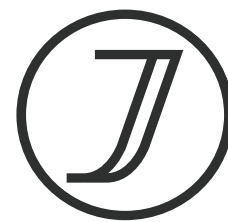
불법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고용한 업소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적발시 ICE의 판단에 따라 최대 1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editor@bostonkorea.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이번엔 '트럼프 강성 지지자' 피살...미국서 정치테러 공포 확산

민주 주의원 총격사망 · 주지사 자택 방화...트럼프도 두차례 피살 위기
있단 정치폭력에 둔감해지는 미국인... "어두운 뉴노멀에 미국 충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지지자로 유명한 우익 활동가의 피살을 계기로 미국 내 정치테러의 공포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미국 내 정치폭력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점점 잦아지고 있고, 이에 '폭력적 포퓰리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이날 미 유타주의 한 대학에서 강연 중 총격을 받아 암살된 찰리 커크(31)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가까운 인물로,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다.

미 당국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동기 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치폭력의 또다른 예라며, 이는 이제 미국 사회의 특징이 됐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1년여간만 해도 미국 내 정치 폭력은 테러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미네소타 주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과 배우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과 그 남편이 새벽 자택에 침입한 범인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같은 당 다른 의원 부부 역시 같은 남성의 총격으로 크게 다쳤다.

주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호트먼 의원은 낙태권 보호와 마리화나 합법화 등의 입법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다. 총격범의 차량에선 정치인 약 70명의 이름이 적힌 노트가 발견됐다.

지난 4월엔 미 민주당의 대권주자 중 한명인 조시 사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관저에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유대인인 사피로 주지사의 가자전쟁에 대한 입장이 팔레스타인인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5월엔 워싱턴DC 시내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을 받아 숨졌다. 과거 반전 단체와 극좌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총격범은 당국에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두차례나 암살 고비를 넘겼다.

그는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오른쪽 귀를 다쳤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범행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국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행사를 찾아보는 등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던 중 골프장에 매복해있던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였으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온적인 정책에 실망해 등을 돌린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총격당한 우익단체 창립자 찰리 커크의 지난 1월 연설 모습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우크라이나 · 가자 전쟁, 미국 내 문화전쟁 등과 맞물려 이념 충돌과 정치적 극단주의가 점차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여기에 미국인들 역시 정치 폭력에 점차 둔감해지는 양상이다.

2021년부터 미국인의 정치 폭력에 대한 성향을 조사하는 시카고 안보 · 위험 프로젝트(CPST)에 따르면 지난 5월 민주당 지지자의 약 40%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제거하기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2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군 투입'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같은 질문의 응답률

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이다.

CPST를 이끄는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 교수는 6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미국 정치에서 극도로 폭력적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페이프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도 현 상황을 '폭력적인 포퓰리즘의 시대'로 부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화약고가 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정치권 인사들을 겨냥한 공격과 위협이 급증하는 가운데 커크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정치적 폭력의 어두운 뉴노멀이 미국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nomad@yna.co.kr



좋은사람들 www.junsyo.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1% 하락...금리인하 전망 힘받나

(워싱턴 = 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노동부는 8월 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크게 밑돈다. 전월 대비 하락을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다.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2% 하락한 것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받는 마진 변화를 측정하는 거래(Trade) 서비스가 1.7% 하락한 게 큰 요인이었다. 또한 기계 및 차량 거래 서비스의 도매 마진이 3.9% 감소한 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무역·운송·창고업을 제외한 최종 수요 서비스 지수와 운송·창고업 최종 수요 서비스 지수는 각각 0.3%와 0.9% 상승했다.

최종 수요 상품 가격은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가격 하락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최종 수요 상품 가격이 0.3% 상승했으며, 식품은 0.1% 올랐고, 에너지는 0.4% 내렸다.

담배 제품(2.3%)을 비롯해 소고기, 닭고기, 인쇄회로 조립품·보드·모듈과 전력 가격은 상승했다.

유틸리티용 천연가스 가격(-1.8%)을 비롯해 신선·건조 채소, 계란 가격은 하락했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6%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3.3%)를 하회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라 전망치(0.3%)와 부합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했다. 도매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미 언론들은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하락이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기준금리 조정에 소극적이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6~17일 공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게 됐다.

생산자물가지수 하락뿐 아니라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

하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인플레이션은 없다"며 "너무 늦은 이"(제품 파워 연준 의장을 의미)는 당장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휴스턴항의 컨테이너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월급 8% 떼도 못 막는다...25년 뒤 건강보험 44조 '적자 쇼크'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 아플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던 건강보험 제도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25년 뒤인 2050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한 해에만 무려 4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최고로 내도 감당 안 되는 지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연구진 이영숙·고숙자·안수인·이승용·유희수·박승준)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25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약 4조6천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즉,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고다.

◇ 핵심 원인은 '고령화'...적게 내 고 많이 쓰는 구조의 심화

이처럼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파도,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에 달하는 48조9천억원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거대한 인구 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해 미래를 예측했는데,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감안했음에도 구조적인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 근본적인 해법 모색 시급...미래 세대에 부담 넘길 수 없어

이번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른 국가기관처럼 실제 수입과 지출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상향식' 모델을 적용해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뺨질식 처방'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다.

지금 대로 안주해 변화를 미룬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shg@yna.co.kr

'건보 고갈' 우려에 복지부 "현재 안정적...국고지원 확대 협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뒤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 "누적 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계속 확대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에 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날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보험료율 8% 도달 뒤 유지 가정)은 당

장 내년에 적자로 전환한 뒤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재정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현행 수입·지출 구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계속 늘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29조7천221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는 연간 급여비 지출액 가운데 3.8개월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SEP. 12th - SEP. 18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STEAMED CLAMS

Once a beloved bar dish in Korea's coastal towns, Jogae Suljijim (Steamed Clams in Rice Wine) is now a cozy, flavorful favorite at home. 따뜻하고 풍미 가득한 별미, 조개술집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hanghai Choy 청경채 LB \$0.99	Gala/Ginger Gold/Mcintosh Apple 갈라/진저골드/맥킨토시 사과 LB \$0.99	Watercress 워터크레스 BUN \$0.99	Kyoho Grape 교호 포도 3LB/PKG \$5.99	Green Onion 파 BUN \$1.99	Asian Pear 아시아 배 4CNT/PKG \$5.99	Green Leaf Lettuce 청상추 BUN \$0.99
Chinese Pomelo 중국 포멜로 LB \$1.99	Green Bell Pepper 청피망 LB \$0.99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LB \$0.99	Orri Mandarin 오리 만다린 LB \$1.99	U.S.A. #1 Potato 감자 5LB/PKG \$1.99	Lago Grape 라고 포도 3LB/BOX \$15.99	White Nectarine 백천도 LB \$2.49

SPEND \$60 AND MORE LIMIT 2 BOX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Bone-in Beef Shank 생 뼈있는 소 아롱사태 LB \$5.99
Pork Jowl Meat 돼지 향정살 LB \$7.99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2.49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eye Steak 양념 벌집 등심 스테이크 LB \$9.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re-frozen Cod Fillet 대구 전감 LB \$7.99	Fresh Hybrid Striped Bass 양식 농어 LB \$7.99
Frozen Silver Pomfret 은병어 300-400'S/LB \$8.99	Frozen Yellowtail 방어 PRODUCT OF KOREA 22-23'S/LB \$1.99
Frozen Loligo Squid 한치 20-25 CM/LB \$5.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5.99

SMART CARD MEMBER ONLY

OTOKI Jin Ramen Cup Noodle Soup 오뚜기 진라면 컵라면 MILD 2.29 OZ X 6 EA/PKG \$5.99	OTOKI Jin Ramen Cup Noodle Soup 오뚜기 진라면 컵라면 SPICY 2.29 OZ X 6 EA/PKG \$5.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	JINGA Abalone Porridge 진가 전복죽 14.8 OZ X 3 EA/BOX \$10.9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 \$11.99	HAIQ Premium Seasoned Seaweed Flakes 해오름 김자반 1.41 OZ X 2 EA/PKG \$2.99	SEMPIO Soy Sauce 샘표 진간장 S/금S RICH & MELLOW/RICH & DELICATE 57.48 FL OZ \$4.99	PULMUONE Mozzarella & Fishcake Corn Dogs 풀무원 모짜렐라 핫도그 14.1 OZ \$5.99	PULMUONE Soupy Topokki 풀무원 국물떡볶이 SPICY/14.9 OZ \$3.99
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게맛살 1.1 LB \$5.99	SAJO DAERIM SEON Fish Cake 사조 대림 선 부산어묵 마당놀이2 RECTANGLE 2.2 LB \$4.99	GOMPYO Korean Pancake Mix 곰표 부침 가루 2.2 LB \$3.99	CHUNG JUNGONE Sweet Potato Glass Noodles 청정원 민속 당면 1.1 LB \$5.99	ARIZONA FARM Natural Honey 아리조나 팜 내추럴 허니 GOLDEN 32 OZ \$6.99
MIKWANG Korean Style Popcorn 미광 돌아온 형그리 강냉이 FOR \$4 5.99 OZ	DR. CHUNG'S FOOD Sweet Vegemil B Soymilk 정식품 달콤한 베지밀 비 6.4 FL OZ X 16 EA/PKG \$9.99	Tae Jaeng Yi Body Peeling Gel 태정예 바디 필링젤 PURPLE LAVENDER/PINK ROSE \$7.99 \$5.29 EA	STENLOCK Handy Classic Stainless Steel Kimchi Container 스텐락 핸드 클래식 김치통 4.8L/6L/7.4L/9L \$49.99-69.99 \$42.99-59.99 EA	HELLO HOME Bear Heel Slippers 헬로홈 곰바닥 실내화 WOMEN - PINK/MINT MEN - DARK GRAY/BROWN \$6.99 \$4.99 PAIR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1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현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 617.447.0501 nohmi@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5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장희 978.866.3248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인주 401.538.3397 tyyee@bostonpremierrealty.com
 박소 617.338.0787 so@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리 617.455.7710 grace.lee@bostonpremierrealty.com	 한수연 617.528.6973 ha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민소 213.503.0347 minso@bostonpremierrealty.com	 박지 413.507.1400 parkji@bostonpremierrealty.com	 손정태 617.913.3348 son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최진근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이형순 781.836.3412 soohye@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59.1214 han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장혜향 617.915.1162 hyun@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규 617.543.0728 tjyoo@bostonpremierrealty.com	 박희 404.641.9102 wpa@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wang11@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ong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wei@bostonpremierrealty.com	 정혜민 박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06.0409 dick@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wb@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한국인 316명 구금 7일만인 11일 귀국길... "美재입국 불이익없다"

317명 중 1명은 '자진귀국' 선택안해... 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 전세기 출발
외교부, 귀국 지연 원인에 "트럼프가 한국인 美에 계속 남으라 권했기 때문"
조현 "일단 귀국후 다시 美 오게하겠다"... 트럼프, 애초 '신체속박없이 호송' 지시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미국 현지시간 11일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톤 구금시설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미국 측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20여분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의했던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제의한, 한국 전문 인력의 미 입국 관련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조성과 관련,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등에 억류된 지 7일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11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구금된 한국인들은 애초 이날 LG 엔솔 측이 준비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미국 측 사정'을 이유로 지연됐다. 이 '미국 측 사정'은 애초 한국인을 구금시설에서 전세기가 대기 중인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호송하는과

정에서 수갑 등 신체적 속박을 하는 문제 등 행정 절차 때문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과의 이날 오전 면담에서 어떤 사정인지가 정확히 파악됐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미대사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나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미국에 남아) 일하게 해주겠다고 한 건 불이익이 없게 해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인의) 재입국 시 기록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텐데 기록에 남는다면 불이익 조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야 한다"며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 '불법체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각각의 비자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으며, 구금자들도 미 당국에 '불법체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석방 지연이 한국 측에 통보

된 것은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서였으며, 당시 미측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 당국의 엄격한 호송 규정에도 우리가 강력히 요청한 대로 수갑 등의 신체적 속박 없이 구금 시설에서 공항으로 호송할 것을 지시했다"며 애초 수갑 문제는 지연 사유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수갑 문제는) 해결이 안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출국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 여성 10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자진귀국'을 선택하지 않고 잔류를 선택했다. 아울러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을 포함해 330명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점과 관련, "현재 지닌 비자가 유효하다면 불이익이 없다는 건 확인이 됐다"며 ESTA(전자여행허가제·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종) 등 구체적 비자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는 동안 미국 측이 사과나 유감 표시를 했는지를 묻자 "그런 건 없었다. 미국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해결된 원인에 대해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미투자 비자제도가 뒷받침 못해... 후속조치 적극 추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사태 문제 해결과 비자제도 개선 협력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이번 일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 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

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협의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원자력, 조선,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공감하고

미 행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로 첨단기술, 제조업과 설계 등이 결합되는 신산업혁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간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국은 미국에 부족한 역량, 자산, 기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양측은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결과 등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미측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데 열려있으며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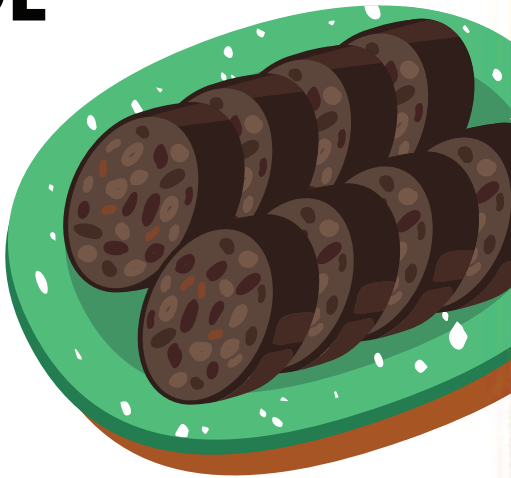
SEP. 11TH - SEP. 18TH, 2025

OLD SCHOOL SOONDAE
Korean Style Links
토종순대

1.5 LB/PKG

\$7.99

LIMI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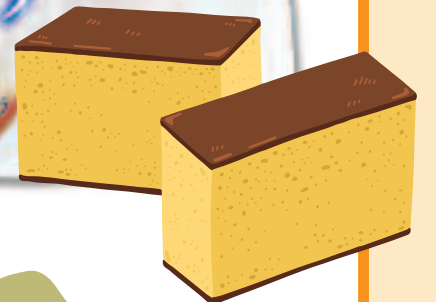
SAKURA SEIKA
Japanese Castella
일본 카스테라

MILK/WHITE PEACH/
 STRAWBERRY/LEMON/
 MATCHA/FRUIT/3.71-4.59 OZ

2\$6.99

FOR

LIMIT 4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베네치아 호평 박찬욱표 블랙코미디... '무관' 딛고 아카데미 도전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제82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해고당한 실직 가장의 재취업 이야기를 박찬욱 감독 특유의 블랙코미디와 미장센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기대를 모았던 황금사자상이 불발되며 아쉽게도 '무관'에 그쳤지만 '해고리는 보편적인 주제에 기반한 '웃픈'(웃기고 슬픈) 상황과 박 감독의 견고하고 세심한 연출, 배우들의 호연이 뒷받침되며 평단을 사로잡았다.

내년 미국 아카데미영화상(오스카상) 국제장편영화 부문에 한국 대표로 출품한 '어쩔수가없다'는 이제 미국 오스카상에 도전한다.

◇ '해고된 가장'이란 보편성... 공감 자아내는 씩씩한 유머 '어쩔수가없다'는 '해고된 가장'이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샀다.

이 영화는 해고된 실직 가장 만수(이병헌 분)가 재취업을 위해 경쟁자를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이야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엑스'(THE AX)를 원작으로 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명분으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상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등으로 일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다는 점에서 '해고된 가장'이라는 소재는 많은 사람과 접점을 이루기 충분했다.

박찬욱 감독도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계속 추진한 이유로 이야기가 가진 보편성을 꼽았다. 이번 영화는 박 감독이 제작을 결심한 지 20년 만에 완성한 작품이다.

박 감독은 지난달 29일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열린 '어쩔수가없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이 고용 불안정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며 "20년간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든 '공감 가는 이야기'라고 반응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보편적인 소재를 블랙코미디로 풀어내면서 영화적 재미도 잡았다.

만수가 회사 선물을 받은 것을 계기로 실직을 알게 되는 장면, 실직에 따라 만수가 정이 넷플릭스 지출을 줄이겠다는 장면 등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한편, 실직이라는 같은 처지를 겪는 사람들끼리 사투를 벌이는 장면은 우스꽝스러워 씩씩함을 자아냈다.

배우들도 '웃픈' 상황을 호연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이병헌은 만수가 경쟁자에게 가질 동질감, 경

쟁자를 제거하려는 냉정함 등 여러 심리가 교차하는 얼굴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어쩔수가없다'는 이처럼 한 장면에서도 여러 감정이 들게 하며 재미와 영화적 깊이를 더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풍자도 놓치지 않았다.

해외 주요 매체도 '어쩔수가없다'의 풍자적인 면모에 주목했다.

스크린 데일리는 "심리적 긴장감과 폭소를 자아내는 장면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며 "실업자의 절망과 자본주의 사회의 불필요한 잔혹함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자 경고"라고 평가했다.

인디와이어는 "박찬욱 감독의 탁월하고 잔혹하고 씩씩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자본주의 풍자극"이라고 했다.

◇ 박찬욱 특유 미장센 여전... "정확하고자 철저하면 우아해져"

박 감독 특유의 견고하고도 빈틈없는 미장센은 이번 영화에서도 빛을 발했다.

가을 산, 만수 집 등의 공간에서는 특유의 색채감이 돋보였고, 오버랩(한 장면에 다른 장면이 겹치게 하는 기법)이나 교차편집도 중요하게 활용하며 인물의 심리를 부각했다.

조용필 '고추 잠자리' 등 1980년대 가요부터 클래식 음악까지 다채로운 음악도 극의 정서를 강화했다. 런던 컨템퍼러리 오케스트



라와 협업해 녹음을 진행하는 등 음악에도 공을 들였다.

이처럼 촬영, 편집, 사운드 등 거의 모든 요소를 세심하게 연출하며 영화의 완성도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

해외 매체 버라이어티는 "'어쩔수가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현존하는 가장 품위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극찬했다.

박 감독은 아름다운 화면에 대해 "우아하고 아름다운 화면에 집

착하지 않는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며 "정확하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아름답고 우아해진다고 믿는다"고 연출론을 밝혔다.

미국의 영화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 따르면 7일 현재 '어쩔수가없다'는 23개 리뷰가 올라온 가운데 평점 10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콘텐츠 평점 사이트인 메타크리틱에서도 11개 리뷰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88점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에스파 신보 '리치 맨', 14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1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에스파가 여섯 번째 미니앨범 '리치 맨'(Rich Man)으로 전 세계 14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6일 밝혔다.

전날 발매된 '리치 맨'은 태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등 14개국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29개국에서는 '톱 10'에 진입했다.

'리치 맨'은 또한 중국 QQ 뮤직 전체 및 EP(미니앨범)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플래티넘'(판매액 100만위안 · 약 2억원) 인증을

받았다. 중국 쿠거우뮤직의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와 텐센트뮤직의 K팝 차트에서도 정상을 밟았다. 일본 음악 플랫폼 아와의 실시간 급상승 차트 1위도 기록했다.

동명 타이틀곡 '리치 맨'은 국내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 100' 차트에서 이날 오전 10시 현재 10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에스파는 영국 음악전문지 NME와 인터뷰에서 "이 노래가 특별한 것은 물질적 부가 아닌, 자기애와 자신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내가 바로 부자라는 뜻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tsl@yna.co.kr





TASTE THE JOY FROM JEOLLA

우수농수산물 특판전

SEPTEMBER 12 - SEPTEMBER 25, 2025



Savor Jeolla's Finest, from Land and Sea.
전라남도의 정성과 풍성한 맛을 H Mart에서 만나보세요.



MISUNG Frozen Yellow Croaker

미성 영광
법성포 참굴비

21.16 OZ ~~\$19.99~~

\$12.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26) 독이 되는 주식시장 예측

주식시장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언론, 경제 전문가, 금융기관 모두가 해마다 주식시장의 향방을 예측한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실제로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예측에 의존하다 보면 투자 결정을 그르치고,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불리는 데 방해가 된다.

2024년 새해에 주식전략가(Stock Strategists)는 주식시장(S&P 500)이 7.4% 상승 그리고 시장전략가(Market Strategists)는 1.3% 상승으로 예측했다. 결과는 25.02%로 상승했다. 주식전략가라는 소위 전문가도 대부분이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며 주식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2023년도 이와 비슷하다. 주식전략가는 17.5% 상승을 그리고 시장전략가는 6.2%로 각각 예측했지만, 연말에 주식시장은 26.3%로 상승했다. 한 연구소(How you can see through wall street's ritual of wrong, Jason

Zweig, WSJ, January 10, 2025)의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주식시장 예측과 실제 수익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시 말해, 전문가들의 예측은 거의 맞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형 금융기관이라고 다르지 않다. 예컨대 2025년 초,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6,5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몇 달만에 5,900으로 낮췄다가 다시 6,100으로 수정했다. 시티, 바클레이, JP모건 등 다른 금융사들도 시장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예측을 바꾼다. 전문가조차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은 이렇게 맞지 않는 예측에 여전히 귀 기울일까?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급락할 때면 투자자는 공포를 느끼고, 급등할 때는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라는 두려움, 이른바 FOMO(Fear of Missing Out)에 사로잡힌다. 이런 심리적 불안 때문

에 사람들은 누군가의 예측에 기대어 안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누구도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미국에서 화폐 통화와 이자율 등을 직접 조절하며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연준 버냉키(Fed chairman Ben Bernanke)는 고별사에서 '과거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인 것은 미래를 예측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If the experience of the past few years teaches us anything, it is that we should be cautious in our forecasts)' 라고 언급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조차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음을 인정 한 것이다.

예측을 좇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 역사적 데이터가 이를 잘 보여준다. 주식시장 수익률(S&P 500)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지난 5년 연평균 15.37%, 10년은 13.3%, 20년은 10.47%, 그리고 30년은 10.98%,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2.39%를 기록했

다. 즉,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연평균 10% 수익률은 복리 효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약 7.2년 뒤에는 20만 달러, 14.4년 뒤에는 40만 달러, 23년 뒤에는 80만 달러가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단기 시장 예측은 투자자에게 독이 된다. 시장에서 아이처럼 행동하는 어른들은 안전하게 격리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는 단기 예측에 의존해 불안과 탐욕에 휘둘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은퇴 준비와 노후 자금 마련은 몇 년 단위가 아닌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 시장 예측에 기대다가는 투자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의 역사가 말해주듯, 꾸준하고 장기적인 투자야말로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일부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 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주택보험 Home Insurance

오늘은 주택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중계인으로 알하다 보면 주택보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융자를 얻어서 사시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산다. 융자를 얻어서 살 경우에 이 집은 본인의 집이기 보다는 은행 소유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택 보험(Home Insurance)이 없으면 융자를 얻을 수 없다. 은행도 본인들을 보호해야 할 보호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살 경우에는 집보험을 들지 않아도 클로징 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집보험이 있다고 하면 뭐든 집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다.

집보험에 따라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말이 잘 통하는 보험 에이전트(Insurance agent)를 만나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

하나 꼭 알아야 하는 건 대부분이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 보험이 적용되는 것

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Coverage A: Dwelling: 집을 짓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집에 structure 지붕과 벽을 이야기한다.

Coverage B: Other Structures: Structure 과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말한다. 담장(Fence), 셰드(창고, Shed) 나 detached 되어 있는 차고 등을 이야기한다.

Coverage C: Personal Property: 말 그대로 personal property 다. 가구, 옷, 전자제품 등 도둑맞을 수 있는 item들을 말한다.

Coverage D: Additional Living Expenses (ALE): 호텔이나 집을 얻어 나가야 할 때 비용이다. 그밖에도 식사비용이나 집을 고치는 동안 나가서 살아야 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말한다.

Coverage E: Personal Liability: 본인 집에서 누가 다쳤을 때 법적인 비용이나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난 개인적으로 이걸 꼭 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위에 항목은 기본적인 항목들이다.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홍수(Flooding), 지진(Earthquakes), 각종 쥐 등 방제(Pest Infestations), 정상적 마모(Wear and tear), 수도 및 하수도 등(Sewer or drain backups) 등이 있다.

집의 위치에 따라 상습적인 침수지역 또는 지진 위험 지역의 경우 은행에서 홍수 보험(Flood insurance) 나 지진보험(Earthquakes insurance)을 들라고 할 수도 있다.

집을 살 때 이부분을 본인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꼭 확인해 봐야 한다.

집보험은 많은 분들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일이니 기본적인 보험은 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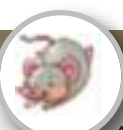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9월 14일 - 9월 2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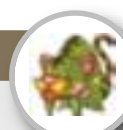
쥐띠 | 좋은 시간을 선물

● 운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도움도 받습니다. ● 금전: 기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야심없이 투자해야 거두어들이는 것도 커질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터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주고 좋은 시간을 선물해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7, 20일 기일. 18, 19일 주의.



소띠 | 참고 지나가는 것이

● 운수: 자꾸 마음이 가고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 금전: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 애정: 너무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세요. 융통성 있게 상대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5, 16일 기일. 14, 2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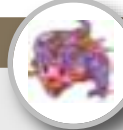
범띠 | 한숨 돌리게

● 운수: 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달려오던 상태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게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 금전: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수지타산이 맞을 것입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았던 장소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4, 19일 기일. 15, 18일 주의.



토끼띠 |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고

● 운수: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충분히 즐겨야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애정: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따뜻하고 정이 담긴 말로 상대의 마음을 문을 열어보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15, 19일 기일. 16,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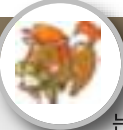
용띠 | 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 운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욕심이 나더라도 현재 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일시적인 해결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 애정: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수록 둘 사이의 틈은 점점 커지고 멀어질 뿐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6, 20일 기일. 14, 17일 주의.



염소띠 |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 운수: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올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세요. ● 금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을 더는 붙잡고 있지 마세요. ● 애정: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더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7, 20일 기일. 15,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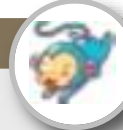
말띠 |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 운수: 이미 알려진 것보다 새로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색다른 재미를 줄 것입니다. ● 금전: 그동안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계약이나 거래에서도 희소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함께 하는 즐거움이 클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기분 좋은 일도 생기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4, 18일 기일. 16, 19일 주의.



양띠 | 누울 자리를 보고

● 운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옛말을 기억하세요.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총동 구매하지 않도록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돈을 쓰지 않으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애정: 같이 있으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5, 19일 기일. 14,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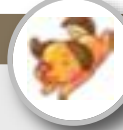
원숭이띠 | 타이밍이 아주 중요

● 운수: 잠깐이라고 생각한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 금전: 투자에 있어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는냐가 득과 실로 갈라지니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힘들어지게 하는 방해요소가 생깁니다. 마치 넘어가야 할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6, 20일 기일. 15,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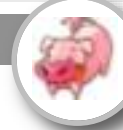
닭띠 | 이미지 변신에

● 운수: 보이는 것이 큰 영향을 주는 때이니 조금만 신경 써서 외모에 변화를 주세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수입이 나아지는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더는 미루지 말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여세요. ● 애정: 가까운 곳이라도 바깥 기운을 느껴보세요. 자연의 내음이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해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20일 기일. 16, 19일 주의.



개띠 | 애쓰는 것에 대한 보상이

● 운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걸어온 사람에게 그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애쓰는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 금전: 그간에 쌓아온 인맥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주변 사람의 말은 그저 참고만 할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19일 기일. 17, 20일 주의.



돼지띠 |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 운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자식이 하는 잘못된 고스란히 부모가 지고 가야 할 몫이 됩니다. ● 금전: 자신이 지금 힘들 게 열심히 쌓고 있는 것이 금방 무너질 모래성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 애정: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 하지 말라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6, 19일 기일. 18, 20일 주의.



'은중과 상연' 김고은 "잔잔하지만 마음 움직이는 이야기"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10대부터 40대까지 함께 한 두 친구.

그저 우정이라고 부르기에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미워하고, 동경하면서도 질투하는 복잡한 관계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은중과 상연'은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복잡미묘한 두 여자의 사이를 차분한 시선으로 그렸다.

극 중 은중 역을 맡은 김고은은 5일 서울 중구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처음에는 '너무 잔잔한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깊이와 서사가 쌓이는 과정이 마음을 참 많이 움직였다"고 출연을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

은중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여자이다.

김고은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만, 동시

에 '난 가난해서 창피했어'라고 솔직히 말할 줄도 아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반면 은중의 친구 상연(박지현 분)은 유복한 집에서 자라났지만, 내면에 상처가 많은 아이로 그려진다.

박지현은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솔직하지 못한 친구"라며 "말수도 적고 차가워 오해도 많이 사는 친구지만, 저는 상연이 입장에서 연기하려 했다"고 말했다.

둘은 초등학교에서 만나 40대가 될 때까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한다.

아역이 연기한 10대를 제외하고 여러 나이대를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두 배우 모두 노력했다고 했다.

김고은은 "제가 어릴 때 어렸나 생각해 보니 불살이 좀 통통했더라"며 "20대의 느낌을 내기 위해 살을 좀 찌웠다"고 귀띔했다.

또 "40대 초반을 너무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외적인 변화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운이 변한다고 보고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박지현은 "중학생 장면도 제가 연기하는 줄 알고 대본 리딩 때 중학생 상연의 대사를 제가 읽었다"며 "저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것 같다"고 웃었다.

두 친구는 점점 오해가 쌓이면서 멀어진다. 하지만 상연은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조력 사망을 결정하고, 그 마지막 동행으로 은중을 찾는다.

이 대목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김고은은 눈물을 흘리느라 한동안 답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이 부분이 제 '눈물 버튼' (매번 울게 만드는 대목) 같다"며 "가장 소중한다고 생각한 사람을 보내줘야 할 때 '나는 어

떻게 해야 할까'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제목과 두 여자의 일생에 걸친 우정이라는 소재 때문에 중국 소설 원작 드라마 '칠월과 인생'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출을 맡은 조영민 PD가 직접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 PD는 "복수라는 주제로도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가 있듯이 우정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런 제목은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시작해서 많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 인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서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은중과 상연'은 총 15부작으로, 12일 공개된다.

heeva@yna.co.kr

로제 MTV VMA 2관왕... "꿈을 좇았던 16살의 저에게 바친다"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MTV VMA'에서 2관왕에 올랐다.

로제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BS 아레나에서 열린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듀엣곡 '아파트'(APT.)로 주요상인 '송 오브 더 이어'(올해의 노래 · Song of the Year)를 받았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가 '베스트 그룹'(Best Group)을 받으면서 로제는 2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K팝 가수가 '송 오브 더 이어'를 포

함한 VMA 주요 부문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스트 그룹'의 경우 블랙핑크는 이번이 2023년에 이어 2번째 수상이다.

이날 금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로제는 "믿을 수 없다"고 운을 떼 뒤 "가장 먼저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브루노 (마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트로피를 꿈을 좇았던 16살의 저에게 바친다.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이기에 기쁘게 이 상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로제는 소감을 말하던 중 프로듀서 테디와 블랙핑크 멤버들을 한국

어로 언급하기도 했다.

로제는 "테디 오빠, 저 상 탔어요. 블랙핑크 멤버들, 저 상 탔어요.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여기에 '베스트 K팝' 부문을 블랙핑크 동료인 리사가 받으면서 블랙핑크 멤버들은 이날 총 3개의 트로피를 수확했다.

리사는 팝스타 도자켓, 레이와 함께 부른 '본 어게인'(Bom Again)으로 '베스트 K팝'을 수상했다. 리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통산 3번째로 '베스트 K팝' 트로피를 차지했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9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최선을 다하는 마음!!

길을 걷다 산책길에 나무들을 만나면 어찌 그리도 모양새나 색깔 나무껍질의 무늬마저도 제각각인지 모를 일이다. 멀리서 보면 모두가 '나무 색깔'이라고 여겨지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모양이나 무늬가 참으로 신기하다. 어느 나무들은 울퉁불퉁 잘려져 나간 모양처럼 고목도 아닌 것이 고목인 모양으로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도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후들거리는 느낌이 들게도 한다. 모두 남의 눈치가 아닌 각자의 생김새와 방법대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가 싶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제 색깔과 모양과 무늬와 목소리를 내며 사는 것이다. 때로는 그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때 마음의 병도 되고 몸의 병도 되는 것이라. 그것 또한 자신의 몫인 것이다. 곁에서 제아무리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을 챙기는 일보다 우선 나 자신을 먼저 제대로 잘 보살피며 사는 일이 상대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일인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고 얘기한들 얼마나 자식에게 마음이 전달될까 말이다.

아내가 아프다고 남편이 아프다고 안쓰러운 마음이야 있지만, 당자자의 그 아픔을 서로가 어찌 알겠는가 말이다. 아픈 사람의 서운함만 더욱 커진다. 몇 년 전 늦가을 새벽 골프를 즐기다가 허리에 무리가 왔던지 다리가 아파 1년을 고생한 때가 있었다. 그 아픔은 남편이나 자식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다. 괜스레 짜증만 내고 속만 상하고 서운하고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나의 인식은 아주 많이 바뀌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선 나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기로 말이다.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어른들이 쉬어 '아이고, 죽겠다!'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식이 얼마나 많을까. 건강건강 듣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 몸 내가 잘 챙겨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한다. 누군들 아프고 싶어서 아플까. 내

색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앓는 소리를 참아보려다가도 할 수 없이 새어 나오는 신음을 어찌하란 말인가. 누군들 젊은 시절이 없었을까. 그 필필하고 건강했던 시절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늙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그마음을 알까.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한테도 적당하게 하자. 그 무엇일지라도 오버하지 말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만큼이면 족하지 않을까 싶다. 형제, 자매도 그렇지만 친구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돕게 되지만, 정도를 넘으면 서로 불편한 관계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친절하게 잘하다가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면 그 친구는 서운함에 새로운 아픔의 골이 생기는 것이다. 관계란 이렇듯 참으로 어려운 숙제임이 틀림없다. 다만, 내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과 행동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족한 것이다.

자식한테도 너무 바라지 않는 마음이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아이들이 자라 각자 제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며 살기에

여유로운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른다. 어느 부모들처럼 나 역시도 세 아이를 위해 극성도 떨고 했던 때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 열정적으로 썼던 그 시간과 돈을 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다들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지금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최선의 마음으로 족하면 그만일 일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세 아이한테 들려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부부도 서로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은 각자가 자기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이다. 나이 들면서 서로의 건강으로 심려를 끼치는 것보다 미리 건강을 잘 보살피며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작든 크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은 내 건강을 잘 챙기는 일이다. 서로 적당한 운동도 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으면 최고일 것이다. 삶에서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만이 될 수는 없지만, 건강으로 가족에게 버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삶이길.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각角잡고 살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각을 잡아라. 한국군대 용어로만 알고 있었다. 오래되어 기억에도 가물거린다. 관물대와 군복 다리미질도 더불어 떠올랐다.

요즘 이 말이 빈번히 사용되는 모양이다. 유튜브에서 봤다. 점잖은 시사 영상에서도 튀어나왔던 거다. 뜻을 찾아 봤다. 규칙적이며, 진지하고 열심히 살아 간다는 의미라 했다.

나태주 시인이다. 살아가는 모습이다. 평범한 일상인데, 규칙적이다.

해가 떴구나 출근해야지

해가 지는구나 어, 퇴근해야지 집에 돌아와 티브이 보다가 졸립구나 그래 자야지 이렇게 살아도 우리네 하루하루는 거룩하고도 아름답고 가득하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나태주, 삶 중에서)

손흥민. 유명한 축구선수 이름이다. 그가 미국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의 인기는 담박에 하늘을 찌를듯 높아진 모양이다. 팀의 성적에 크게 기여하는 건 물론이다. 또

한 그의 상품적 가치는 성적과 아울러 상당하다 했다. 유니폼 판매량은 이미 정점을 찍었고, 티켓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다.

손흥민선수는 삼십대 초반이다. 그 나이 라면 축구선수로는 은퇴가 멀지 않았을 게다. 그의 엘에이 이적移籍은 나이에 따른 프로생활의 정리를 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운동장에서 활활 나른다. 각잡고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연습하고 관리한 덕일 거라 믿는다.

미국에서 프로축구는 2류였다. 선수들과 팀들은 미식풋볼이나 야구와 농구에 한참 밀리던 거다. 관중 동원수야 오죽하랴. 그

런데, 손흥민선수의 등장으로 축구리그의 붐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미국축구 관계자들 입이 크게 벌어졌을 게다.

관중이 있어야 프로스포츠는 붐이인다. 관중없는 스포츠의 융성은 기대할 수 없는 거다. 곧 미국에서도 프로축구의 붐이 활활 불타 오를거라 믿는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고참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미 각을 잡고 있을 터. 그러나 각진 삶을 더욱 날서게 하라. 지금은 또다른 새로운 시작 일테니 말이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사라 (골로새서 1:18)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eamkorea)
이메일 : huream@huream.kr
홈페이지 : www.hure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스마일안과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법은?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환절기에 급증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스마일안과 염 동주 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을철 불청객, 알레르기성 결막염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공기 중 떠다니는 꽃가루,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이 눈에 자극을 주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이 가렵고 충혈되며, 눈곱이 끼거나 눈물이 과도하게 흐르는 증상

을 보인다. 특히, 손으로 자주 눈을 비비게 되면 2차 감염의 위험도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 파악은 어렵지만, 증상 관리와 조기 대응이 핵심
 실제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유발 물질은 매우 다양하고, 개인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회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접근은 원인 규명보다는 증상 완화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관리이다.
 특히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화되기 쉬운 질환이다. 증상이 시작될 때 가능한 빠르게 안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하는 것이 증상 악화를 막고 회복기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활 속 주의사항과 치료 방향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예방하고 증상을 줄이기 위해, 외출 후 손씻기, 렌즈 착용 최소화, 눈

화장 자제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가 치료나 방치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치료에 있어서는 항히스타민제나 필요시 스테로이드 성분의 점안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역시 무분별한 자가 사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 후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의 증상이나 눈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의 진료를 통한 눈 관리 습관
 눈은 외부 자극에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알레르기 자극은 단순한 가려움증을 넘어 각막 손상이나 안구건조증 같은 2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단순한 불편함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조기에 진료를 받는 것

이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환절기 알레르기성 결막염,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진료받아 건강한 가을을 맞이해보자.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법은?”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 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년 챙겨 먹던 구충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선생님, 한국에서는 매년 봄·가을마다 구충제를 챙겨 먹었는데, 미국에서도 먹어야 하나요?”

한국에서 오신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도, 구충제만큼은 습관처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미국에서의 구충제 복용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먹지 않을까?

미국 질병관리청(CDC)과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생충 감염 자체가 드물고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있을 때 진단 후 치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증상도 없는데 예방적으로 약을 먹는 건 효과도, 필요성도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온 사람은 예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구충제를 무조건 복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회충이나 간흡충 감염이 흔했지만,

2000년대 이후 위생 환경과 공공보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체 감염률이 급감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청구 데이터에 따르면 간흡충·요충 등의 감염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드문 질환이 되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왔으니 일단 먹자” 는 방식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엔 예방적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복용으로 예방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골 지역에 살면서 위생 환경이 열악했던 경험이 있다면

해외 체류 중 깨끗하지 않은 물이나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다면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유 모를 호산구 증가(eosinophilia)가 발견되었다면

면역 억제 치료(스테로이드 등)를 곧 시

작할 계획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잠재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한 번쯤은 약을 복용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어떻게 복용할까요?

알벤다졸(albendazole) 600mg 경구 1회 복용

→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등 대부분의 장내 기생충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버멕틴(ivermectin) 200µg/kg 경구 1회 복용

→ Strongyloides stercoralis (사상충) 예방에 사용. 면역 억제 치료 전 고려합니다.

* 단, 감염 위험 노출이 없다면 매년 반복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회를 자주 먹었던 분은?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민물 생선회(예: 메기, 붕어, 뱀장어 등)를 냉동 또는 익히지 않고 먹은 경험이 있다면

간흡충, 폐흡충, 광절열두조충 등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냉동 없이 바로 회로 먹은 경우라면

1회 예방 복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내 기생충과 달리 간흡충류는 증상이 없더라도 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바다 생선(광어, 참치, 연어 등)은 아니사키스(Anisakis) 위험이 있지만,

이 경우는 현재의 구충제(알벤다졸)로는 예방 불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는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대부분은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된다면 1회 예방 복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위생적인 환경 노출

민물회 섭취 경험

호산구 증가

면역억제 치료 계획

정확한 판단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 둔화가 가져온 기회, 지금이 재융자 적기일 수 있습니다

Article (17) - Opportunities from a Weakening Job Market: Now Is a Good Time to Refinance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 NMLS 1464242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 NMLS 254885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978) 314-8818
mike.lee@gmccloan.com

주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바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금리는 단순히 은행이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여러 지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뉴스에는 물가, 소비자 신뢰지수, 제조업 지표 등 다양한 요소가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은 특히 고용 관련 뉴스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금리를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고용지표 → 장기국채수익률 → 모기지 금리라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지표가 강하면 소비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 국채 수익률 상승 →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고용지표가 약하면 경기 둔화 우려로 → 국채 수익률 하락 → 모기지 금리 하락이 나타납니다.

1. 고용 약화 — 노동시장 둔화의 신호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약한 결과를 보여주며,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

대출금액	기존 금리 6.75% 월 납입액	재융자 금리 5.85% 월 납입액	월 절감액
\$300,000	\$1,947	\$1,768	\$179
\$500,000	\$3,245	\$2,946	\$299
\$700,000	\$4,543	\$4,124	\$419

재융자 시 월 납입액 절감 예시 (30년 고정 모기지 기준. *계산 기준: 원리금 상환(P&I) 포함, 세금·보험 제외)

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투자자들에게 금리 하락 가능성을 예고하며, 모기지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 금리 하락 — 국채 수익률과 모기지 금리 동반 하락

고용 둔화 소식 이후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고, 모기지 금리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최근 6%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구입(purchase)과 재융자(refinance) 모두에서 일부 고객들이 5% 후반대 수준의 이자율이 가능했습니다. 얼마전 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입니다.

3. 재융자 시점 — 최근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타이밍

이자율이 낮아지는 현 시점은, 과거 2년 내에 집을 구입한 분들에게 재융자를 고려하기에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특히 6프로 중후반, 7%대 금리로 대출을 시작한 경우, 5% 후반6% 초반으로 갈아타면 월 납입액 절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최근 재융자 신청 비중은 전체 모기지 신청의 약 절반 가까이로 급증하며,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론

최근 고용지표 둔화는 시장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처럼 5% 후반대까지 금리가

열린상황은, 구입자와 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2년 내 주택을 구입했거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재융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최적 시점입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 금리를 확인하고, 월 납입액 절감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재융자를 고려한다면 경쟁성 있는 마이크로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보스턴 코리아 광고 및 컬럼을 보고 문의를 한 경우 lender fee를 크레딧(\$1,500가량)을 드리겠습니다.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health.us

Hmart
hmart.com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및 은퇴 준비



전문적인 세무전략과 절세플랜
재정 전문가가 알려주는 은퇴플랜

SPEAKERS

Kenny Shin
UNI President / CEO



Gina Shin
UNI VP / EA 세무사



Lori Moon
Senior Marketing Director



EVENT DETAIL

날짜 : 10/17(금) 7PM - 은퇴/ 세금절세

10/18(토) 10AM - 은퇴/세금절세

10/18(토) 1PM - Medicare

장소 : 117 Kendrick St Suite 300,
Needham, MA 02494

문의 : UNI Boston 617-468-6446
unioffice.ma@gmail.com

